

공부·운동 병행, 명문대 사려 음미해야

전문가칼럼 - 발전과 만족



남성우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발전적 성취'와 '만족의 여유'란 정확히 무엇일까. 우선 주관적 용어로 '발전과 만족'의 개념을 설명하자면, '발전적 성취'란 개인의 사회적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경희인과 사회인으로서 심오한 학문탐구 등 전공에 대한 몰입과 노력을 통해 사회적 명예와 지위, 학문성과 수준 등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만족의 여유'란 각자의 개인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자와 비교할 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학인과 사회인은 물론 은퇴 후 삶이 다할 때까지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하겠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멀리 보면서 발전과 병행함으로써 삶을 '더 건강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족의 여유는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영역, 수많은 갈래 포함

필자는 지난 2005년부터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교양스포츠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스포츠정책, 그 중에서도 레저스포츠정책을 전공으로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글은 '만족의 여유'를 제공해주는 영역 중 '스포츠'와 함께하는 대학 및 미래생활을 권유하는 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권유는 발전적 노력을 해왔고 또 하고 있는 경희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유가 될 것이다. 스포츠 활동은 절대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발전적 노력에 만족의 여유를 더해주기 적합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주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자성이 중 하나가 고진감래(苦盡甘來)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는 본래 내포한 의미보다는 주로 '오늘의 노력으로 내일을 보장 받는다'는 의미로 활용되면서 '경쟁에서의 우위 점유'라는 관점에서 강조되어왔다. 오죽하면



'일한만큼 즐기는 당신이 더 아름답다'는 주제의 공익광고가 만들어지겠는가.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일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적 노력도 비교적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부 선진적인 기업에서는 18시가 되면 업무용 컴퓨터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시간별 탄력근무제'를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고민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포츠 정책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스포츠 활동 진작을 통한 적극적인 생활 개선의 노력은 아직도 요원하고 아쉬운 형편이다. 자, 상단의 사진을 보자. 1982년에 개봉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유명한 영화 〈E.T.〉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외계인의 체형이다. 영화의 제작진은 E.T.의 체형을 고민한 결과 당시 코앞으로 닥쳐왔던 미래 컴퓨터 환경에 오래 노출된 인간의 체형을 모델로 E.T.의 체형을 모델링했다. 커진 뇌와 눈, 짧아진 다리, 길어진 목과 손가락, 커진 배와 작아진 발 등으로 이뤄진 외계인의 모습은 용불용설(用不用說)에 입각해 탄생한 미래 인류의 예상도인 셈이다. 오래전 대학주보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체 변형이라는 극단적인 우려 등을 진행해오는 동안, 매 학기마다

는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건강'이 아쉬운 수많은 순간들을 근래에 많이 겪어왔다. 창의적 융합 패러다임을 선도한 인재인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도 '건강'이 아쉬웠던 대표적인 인사이고, 고등학교 시절 부친의 운동 권유를 실천하지 못해 오늘

날 전 세계를 돌며 체력의 한계를 통감한다는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이와 유사한 사례일 것이다. 더불어, 지난 1955년 시운마루호 참사 이후 유치원생부터 철저한 수영교육을 시키는 일본의 방침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었다면 혹시 세월호의 비극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한탄 역시 짚게 드리운다.

스포츠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준다

스포츠는 일상의 시간을 잡아먹는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스포츠는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세계적인 대학은 거의 대부분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만이 스포츠는 물론, 일상에서의 움직임마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골프강좌 등을 진행해오는 동안, 매 학기마다

빼지지 않고 들어오는 질문이 있다. '골프, 수영, 레저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항상 같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걷기 등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려나가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다.

서울캠퍼스 학생은 회기역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고, 청운관은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리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평화의 전당을 산책해보자. 마찬가지로 국제캠퍼스 학생은 영통역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고, 버스를 이용한다면 외국어대학 앞에서 내려 강의실까지 걸어보며, 멀티미디어관은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릴 수 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노천극장으로 산책해보면 좋을 것이다.

이런 일상 안의 운동을 통해 기초체력이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길어진 기초체력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나서본다면, 종국에는 어느 기업에서도 요구하는 경희인, 학문적 성취도가 높은 경희인, 나아가 인류발전을 선도하는 경희인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오늘의 작은 걸음 한 발자국이 누적되면,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미래를 안겨주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제'이다. 이 문제는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인간은 더 이상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부속이 합쳐진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부폐의 문제'이다. 의회 공청회 방청권을 사고 팔면 부유한 로비스트가 방청권을 독점하게 되고 의회의 품위는 손상하게 된다. 시장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고 교환되는 순간 가치가 감소하거나 변질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야구장 스탠드를 복층으로 만들고 상층을 호화로운 MVP 층으로 만들자, 개척자 정신으로 하나가 되었던 미국의 지역 공동체가 빈부차에 따라 양분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공동체주의자 샌델은 미국적 가치가 사라지는 이러한 현상을 막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시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관한 문제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도덕적 시민적 재화는 존재하는가?" 요컨대, 바야흐로 도덕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경제학자들은 인센티브가 일반화되는 것에 주목한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며, 인센티브는 현대 삶의 초석이고, 경제학은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경제학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믿는다. 유인이 필요한 인간의 모든 행동에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질서가 비시장 규범의 영역에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시장사회에의 명분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원하는 재화의 자유로운 거래라는 자유주의의 이념과 시장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은 이익을 제공하며, 집단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는 공리주의의 이념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예로 목장 주인이 제한된 수의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는 권리 를 사냥꾼에게 팔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코뿔소를 번식시키고 돌보면서

밀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검은 코뿔소의 수가 다시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면 시장사회가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일까? 샌델은 공정성과 부패가 문제라고 한다. 신장 불법 거래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신장을 파는 사람은 아마도 상황에 몰린 가난한 사람일 것인데, 이것이 '공정성의 문

참여마당

나희연
(국어국문학 2014)



그럼에도 계속해보겠습니다

황정을 작가의 소설 〈계속해보겠습니다〉는 철저하게 미미한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다. 자매인 '소라'와 '나나', 그들의 옆집에 살던 소년인 '나기'가 소설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독립해서 자신만의 삶을 꾸리고 있다. 소설은 그려내는 이들의 삶은 거창하지도 요란하지도 않다. 그저 조용하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내면에는 미미한 존재로서 이들이 받은 상처와 흉터가 남아있다.

"벽을 끼고 이쪽 모퉁이를 돌면 이웃집... 벽을 끼고 저쪽 모퉁이를 돌면 우리집(26쪽)"인 공간. 쉽사리 상상조차 가지 않아 환상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곳에서 세 사람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 반지하에 위치한, "벽을 사이에 둔 둘이자 하나의 공간(187쪽)"이라는 배경에 대한 묘사는 주인공의 어려웠을 어린 시절을 어렵잖거나 짐작하게 한다. 소라와 나나는 모성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했고 나기도 일을 하러 나간 엄마를 기다려야 한데다 가난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장했다.

사회의 암묵적 폭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인공

'상상할 수 없다고 세상을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줘'

주인공들은 암묵적인 차별의 시선을 견디며 자란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미혼모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폭력에 대한 모든 시선들. '우리'가 쉬이 상상할 수 없고, 겪어보지 못했기에 은연중에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들. 책은 우리가 '결핍되었다'고 단정 짓는 것들에 대해 보내는 우리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소설 후반부에 작가는 나기의 입을 빌려 말한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다고 세상에 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말아줘.(187쪽)"

어쩌면 이제껏 세상은 줄곧 폭력으로 가득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소외시켰고,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소외당하기도 하면서. 종종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바람에 애인 살갗처럼 아플 때가 있다. '아프다'고 소리내어 말하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아픔.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은 결코 작지 않다. 소설은 그런 아픔들에 대해 다룬다. 이것은 세상에서 '평범'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한 메시지이자 소외에 대한 시선이다. 사회가 '평범'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폭력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끊이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동등하지 못한 시선에 의문을 품고 소외에 대해 응시해야 한다. 이 소설이 던지는 의문은 거창하지 않다. 소라, 나나, 나기의 존재만큼이나 고요하게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존재한다. 소설은 의문을 거두지 않는다. 상처를 안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을 묵묵히 응원한다.

결국 우리는 모두 저마다 서로 다른 부족으로 떨어져 살아간다. 인간은 하찮지만, 그래서 인간은 그 하찮음으로 어떻게든 살아간다. 하찮기에 사랑스러운 인간은 세계의 폭력에 무기력하지만, 또 그럼에도 생을 이어간다.



경제학자들은 인센티브가 일반화되는 것에 주목한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며, 인센티브는 현대 삶의 초석이고, 경제학은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경제학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믿는다. 유인이 필요한 인간의 모든 행동에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질서가 비시장 규범의 영역에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그러면 시장사회가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일까? 샌델은 공정성과 부패가 문제라고 한다. 신장 불법 거래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신장을 파는 사람은 아마도 상황에 몰린 가난한 사람일 것인데, 이것이 '공정성의 문



대한적십자사
경기일액원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당신의 헌혈이 누군가에겐 꺼져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지금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을 방문해 주세요.